

PROJECT284

복숭아
꽃이
피었습니다

PEACH BLOSSOM:
HOPEFUL FLOWER OF UTOPIA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문화역서울284

 <p>문화체육관광부 Kcdf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문화역서울 284</p>	예술감독 : 신수진	artfuleye@kcdf.kr 02-3407-3533	2016.04.29 배포
	전시큐레이터 : 변수정	romi@kcdf.kr 02-3407-3504	첨부1. 행사개요 첨부2. 공연소개 : 원스텝 첨부3. 예술감독 서문
	공연프로듀서 : 강낙현	kang@kcdf.kr 02-3407-3502	
	홍보매니저 : 김민경	min284@kcdf.kr 02-3407-3503 010-3414-7321	웹하드 seoul284 / 12345 "Press"폴더 (unlock : press12345)

문화역서울 284 융복합 예술 프로젝트
<복숭아 꽃이 피었습니다>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곳에서 전시, 공연, 영화, 토크쇼, 워크숍을
한꺼번에 즐기는 융복합 예술 프로젝트!*

*하루 종일 머물고 싶은 공간, 매일 와도 새로운 감동!
보고, 듣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의 정원을 거닐다!*

*놀이처럼 즐기는 공연과 공연처럼 즐기는 강연!
장르와 경계를 넘나드는 세계적 아티스트들이 펼치는 환상의 무대!*

오는 4월 30일부터 6월 26일까지 문화역서울 284에서 전시, 공연, 영화가 어우러진 융복합 예술 프로젝트 <프로젝트284 : 복숭아 꽃이 피었습니다>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역서울 284가 주관하는 <복숭아 꽃이 피었습니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 삶'에 대한 작가들의 다양한 관점을 전시, 공연, 영화, 토크쇼,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으로 엮어 관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융복합 예술 프로젝트이다.

문경원, 양아치, 국형걸, 김명범, 팀 스푼너^{Tim Spooner}(영국), 마리사 실바트리즈 폰스^{Marisa Silbatriz Pons}(스페인), 보라운^{Bora Yoon}(미국) 등 7개국에서 시각과 공연예술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 27팀이 참가한다.

“보고, 듣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의 정원을 거닐다”

전시는 ‘인간의 이상적 삶’이라는 주제를 **감각의 정원**에서, **네모난 무지개를 따라**, **욕망의 땅** 깊숙이, **꽃을 피우다**의 4가지 소주제로 엮은 스토리텔링 형태로 구성된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고, 입으로 말하는 경험을 통해 흥미롭게 작품을 감상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강소영**릴릴, **국형걸**, **김명범**, **김세진**, **김원화**, **김준**, **문경원**, **신성환**, **양아치**, **이병찬**, **이희원**, **로랑페르노** Laurent Pernet(프랑스), **크리스토프 브뤼노** Christophe Bruno(프랑스), **해미 클레멘세비츠** Rémi Klemensiewicz(프랑스), **히로노리무라이** Hironori Murai(일본)+**김승영** 등 15팀의 작가가 참가한다.

1. 감각의 정원에서

문화역서울 284 중앙홀에서 시작되는 첫 번째 여정 <감각의 정원에서>는 대자연의 순수한 생명력과 위대한 힘이 공존하는 장소이자 상태로서의 이상향을 추구하는 작품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자연과 동화되거나 자연의 일부로 존재하는 이상적 인간세계를 경험하고, 자연과 인간이 새로운 모습으로 공존하는 미래의 풍경을 상상하게 된다.

건축가 **국형걸**은 중앙홀 한복판에 재활용 산업자재인 플라스틱 팔레트로 미로 정원과 같은 공간을 연출한다. 거대한 미로를 따라 안쪽 깊숙이 들어가면 투명하고 하얀 포말이 부서져 내리는 폭포의 절경을 마주하게 된다. 언뜻 보아서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여느 폭포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이희원**의 이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이 아래로 떨어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현실에 있는 듯 하나 실상은 비현실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신기루 폭포의 비밀을 발견하는 순간, 사람들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을 하게 된다. 소리를 활용한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 미디어작가 **김준**은 관람객들이 관 모양의 소리 상자에 들어가 누워서 이른 아침 사찰과 교회에서 채집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한다.

2. 네모난 무지개를 따라

<네모난 무지개를 따라>에서는 상상력으로 빚어낸 비현실적 세상, 또는 미래의 이상적인 공간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 한다.

빨간 풍선 나무가 뿌리 째 뽑혀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는 듯 보이는 **김명범** 작가의 설치작품은 가볍고 나약한 풍선의 부력이 마치 나무를 뽑아 올릴 만큼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듯 하는 착각을 일으킨다. 설치미술 작업으로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문경원**은 워크숍 형태의 대화로 관객과 만난다. 건축가, 과학자, 조향사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공원을 제안하는 토크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개개인의 기억과 경험 안에 형성되어온 공원의 의미와 각자가 꿈꾸는 유토피아를 공유하고, 작가가 제안하는 이상적 미래공원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3. 욕망의 땅 깊숙이

판타지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소망과 욕구가 성취되는 허구의 세계다. 디스토피아적 상황을 보여주는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현실의 부조리와 욕망, 불안,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을 이야기하며, 일상적 욕망의 실현으로서의 판타지를 상상해본다.

산업폐기물을 활용해 움직이는 조형물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이병찬**은 문화역서울 284 공간에 일회용 비닐봉지로 제작한 도시생명체를 출현시킨다. 욕망의 도시에서 탄생한 이 괴기하고 기형적인 돌연변이는 도시 속 판타지 세계를 상상하게 한다. 문화역서울 284 2층 그릴에 펼쳐지는 탐스러운 복숭아밭은 꿈속에서 도원을 거니는 듯 몽환적이고 신비롭다. 미디어작가 **양아치**의 작품이다. 곳곳에 설치된 비디오 화면에서는 작가가 창작한 판타지 소설을 시각화한 장면들이 펼쳐진다.

4. 꽃을 피우다

여행의 마지막 여정 <꽃을 피우다>에 이르러 우리 사회는 결국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에 의해서 주어질 수 있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행동을 통해 만들어가야 하는 현실임을 깨닫게 된다. 개인, 사회, 국가 간의 이상적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과 작은 움직임들이 우리에게 이상적인 세상을 실현시킬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사회적 이슈들을 소재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인터랙티브 아트를 주로 하는 프랑스 작가 **크리스토프 브뤼노** Christophe Bruno의 <와이파이-에스엠 WiFi-SM>은 작가가 제작한 밴드를 팔에 착용하고 있으면 전 세계에 전쟁, 기아, 난민 등이 발생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자극 내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감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시, 소설 등 주제와 관련된 문학작품을 선별하거나 낭독자 본인이 쓴 글을 직접 낭독하고 녹음 파일을 소장할 수 있는 낭독실 부스도 운영한다. 관객 참여형으로 이루어지는 <낭독실>은 문학 작품을 관객이 직접 소리 내서 읽고 녹음하면서 우리들이 바라는 이상적 세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공연 및 워크샵]

“ 놀이가 된 공연, 강연이 된 공연! 장르와 경계를 뛰어넘는 세계적 아티스트 참여”

행사 기간 중 인형극, 연극, 음악, 무용, 퍼포먼스 등 총 11편의 공연이 개최되며, 어린이날인 5월 5일과 매주 토요일에는 총 9회의 참여 토크쇼와 워크숍이 마련된다.

원스텝 One Step at a Time Like This(호주), **팀 스푸너** Tim Spooner(영국), **틸라신** Thylacine(프랑스), **보라윤** Bora Yoon(미국), **가브리엘 프로코피에프** Gabriel Prokofiev(영국), **마리사 실바트리즈 폰스** Marisa Silbatriz Pons(스페인), **김병오, 김혜경** **가다 프로젝트, 나나다시, 꼬끼리들이 웃는다, 재미웍스(오종철, 김남기)** 등 6개국 12팀이 참가하며 미술, 영상, 디자인, 놀이, 교육의 개념이 접목된 새로운 형식으로 선보인다.

▶ 놀이가 된 공연

관객참여의 장소 특정적 공연을 만드는 호주 극단 **원스텝** One Step at a Time Like This의 공연은 문화역서울 284만이 지닌 공간의 역사적 의미를 탐색하고 이를 직접 체험하면서 관객 스스로 공연을 만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게임 같은 공연이다. 어린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가족과 함께 문화역서울 284의 공간을 자유롭게 탐방하면서 곳곳에 숨겨져 있는 미션을 수행하며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이야기를 완성해간다. 이를 위해 원스텝은 한 달 동안 한국에 머물며 문화역서울 284의 역사와 공간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발굴해 내고, 스토리북, 미션게임, 어둠의 터널, 시계모양 쿠키 등 공간의 특성에 맞게 고안한 장치들을 문화역 곳곳에 숨겨놓았다. 건물에 살고 있는 소녀요정의 안내에 따라 보물찾기 하듯 여행하다 보면, 특별한 공연 한편이 완성된다. 하루 7~12회의 공연을 진행하며 1회 공연에 한 가족에게만 참가 기회가 주어진다.

클래식음악을 대중음악과 결합시키고 오케스트라 연주에 DJ테크닉을 접목시키는 실험을 하고 있는 **가브리엘 프로코피에프** Gabriel Prokofiev는 대중을 흥미로운 클래식 세계로 안내한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러시아 작곡가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의 손자인 가브리엘 프로코피에프는 런던에서 작곡가, 프로듀서, DJ로 활동하며 12년째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문화역서울 284에서는 국내 현악 사중주 악단 **베티너콰르텟**과의 협업으로 완성된 <**넌클래식 나잇** NonClassical Night>으로 관객과 만난다.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근대건축 공간에서 펼쳐지는 프로코피에프의 공연을 통해 관객들은 클럽에서 즐기는 파티 음악보다도 짜릿한 클래식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 공연이 된 놀이

스페인의 행위예술가 **마리사 실바트리즈 폰스** Marisa Silbatriz Pons는 어릴 적 습관처럼 불던 휘파람을 예술적 행위로 창조해냈다. 그녀의 휘파람은 연출자 **로날도 산 마르틴** Ronaldo San Martín과의 협업으로 무대 위에서

완벽한 언어로 탄생했다. 전 세계 모든 관객들과 직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휘파람은 마리사에게 있어 유토피아다. 천상의 멜로디와 같은 휘파람 소리로 그녀는 관객들을 자신의 유토피아로 초대한다.

▶ 강연이 된 공연

미국에서 작곡가, 보컬리스트, 사운드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보라운**^{Bora Yoon}은 공연자이자 강연자로 무대에 오른다. 보라운은 2014년 테드 펠로우(TED fellow, 젊고 유망한 혁신가를 선정하여 발언기회를 주는 미국에서 열리는 명사들의 강연행사)로 선정되어 테드 강연에 참여했으며, 허핑턴 포스트가 선정한 '오페라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있는 14명의 아티스트'에 포함되기도 하는 등 혁신적인 아티스트로 인정 받고 있다. 음향 디자인에 기반을 둔 영상 스토리텔링을 추구하는 그녀는, 기억과 연상을 자극하기 위해 디지털 장치와 본인의 목소리, 일상 속 물체들은 물론 수백 년에 걸친 역사와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찾아낸 수많은 악기를 사용하여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사로잡는 사운드 파노라마를 그려낸다.

평범한 목수에서 세계적인 테너가수의 꿈을 이룬 **김병오**는 음악과 토크쇼가 결합된 토크콘서트로 관객과 만난다.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및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악대 성악과 졸업 후 오페라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김병오는 독일 캄머 오페라단 데트몰트 주립극장 주역가수로 활동하였다. 성악가로서 화려한 이력을 가졌지만 그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공고를 졸업하고 목수 일로 생계를 이어가던 청년이었다. 테너 김병오는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과 좌절의 인생 스토리를 자신의 노래와 재치 있는 입담으로 풀어낸다.

▶ 공연이 된 미술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공연으로 2015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팀 스푸너**^{Tim Spooner}의 <동물들의 집회(The Assembly of Animals)>를 문화역서울 284에서 만날 수 있다. <동물들의 집회>는 팀 스푸너가 직접 개발하고 제작한 조각과 인형 등 움직이는 오브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겹겹의 붉은 벨벳커튼이 걷혀지며 새로운 동물들의 세계가 확장되면서 관객들에게 신비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아이들은 환상적인 세트의 분위기와 아기자기한 인형들의 움직임에 매료되고, 성인 관객은 커튼이 열릴 때 마다 확장되는 동물들의 집회를 통해 상상력을 자극 받는다. 두 번의 공연과 함께 작가의 작업과정을 소개하고 공연에 출연한 동물 모형의 제작과정을 시연해보는 토크쇼가 개최된다.

프랑스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틸라신**^{Thylacine}이란 이름의 일렉트로닉 뮤지션으로 활동 중인 **윌리엄 르제**^{William Rezé}는 시각예술과 음악이 결합된 새로운 음악장르를 개척해 2012년부터 프랑스 음악계의 떠오르는 스타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부드럽지만 파워풀한 일렉트로닉 장르를 추구하는 그에게 애니메이션과 조명을 활용한 시각적 효과는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VJ **라에티시아 벨리**^{Laetitia Bely}와 협업으로 완성되는 그의 음악은 즉흥적이고 자유로우면서 몽환적인 분위기로 관객들을 몰입시킨다.

이 밖에, 매주 토요일에는 **원스텝, 마리사 실 바트리스 폰즈, 가브리엘 프로코피에프** 등 참여 작가와 함께하는 워크숍과, 개그맨 **오종철**이 진행하는 가족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의 관객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영화]

“시간이 멈춘 공간, 문화역에서 영화를 즐기다”

문화역서울 284 3등 대합실은 영화 상영관으로 변한다.

프랑스 출신의 행위예술가 **오를랑^{ORLAN}**, 영화평론가 **심영섭**, 연기자 **조민기**, 안무가 **차진엽** 등 8명의 국내외 문화계 인사들이 추천한 약 38편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시네마테크>가 상설로 운영된다.

영화평론가 **심영섭**은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위대한 개츠비> 등 사랑, 가족, 자연과 같은 이상적 공간과 이상적 관계, 휴머니즘을 다룬 영화들을 추천했다. 영화배우 **조민기**는 시·공을 초월한 세계에서 잃어버린 꿈과 희망을 되찾는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 <중앙역> 등을 추천했으며, 영화감독 **한지승**은 삶과 죽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이상향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여정을 담은 영화 <지중해>, <아비정전> 등을 추천했다. 안무가 겸 무용가 **차진엽**은 <솔라리스>, <방파제> 등 우리가 진정 바라는 유토피아에 대한 단상을 담은 영화들을 추천했다. 프랑스 출신 행위예술가 **오를랑**은 <모던타임즈> 등 21세기인 오늘날 사회를 여전히 통찰하는 20세기에 만들어진 시사 풍자 코미디 영화들을 소개했다. 패션디자이너 **계한희**는 성공을 꿈꾸는 27살 뉴욕커 프란시스의 성장을 그린 영화 <프란시스 하> 등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찾아 새롭게 도전하는 영화들을 추천 했으며, 정신과 전문의 **하지현**은 인생의 의미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소통의 과정을 담은 영화 <트루먼쇼>, <어바웃 타임> 등을 추천했다. 2015베니스비엔날레에 한국관 대표작가로 참여했던 미디어 작가 **문경원**이 추천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고뇌와 진지한 성찰을 담은 영화 <잃어버린 지평선>, <뷰티플 그린> 등도 상영된다.

시네마테크는 5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문화역서울284 1층 3등 대합실에서 상설로 운영 된다.

<프로젝트284 : 복숭아 꽃이 피었습니다>를 온전히 즐기고 싶다면 하루를 통째로 비워둘 것을 권한다.

오랜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역사 문화 공간인 문화역서울 284에서 온종일 유유자적하며 전시와 영화, 공연을 즐기면 하루가 아깝지 않을 것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며 자세한 일정은 문화역서울 284 홈페이지 seoul284.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3407-3500

문화역서울284 융복합 예술프로젝트
<프로젝트284 : 복숭아 꽃이 피었습니다>

□ 개 요

- 행사명 : 국문 <프로젝트284 : 복숭아 꽃이 피었습니다>
영문 <Peach Blossom : Hopeful Flower of Utopia>
 - 기간 : 2016년 4월 30일(토) ~ 6월 26일(일) (월요일 휴관)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역서울 284
 - 장소 : 문화역서울 284 전관
 - 행사구성 : 전시, 공연, 영화, 워크숍, 토크쇼
 - 참여국가 : 한국, 호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7개국
 - 참여작가 : 사운드 아트,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영상, 설치, 퍼포먼스,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기반으로 하는 작가 27팀
-
- 전시 : 국형걸, 김준, 강소영릴릴, 이희원, 신성환, 김명범, 김원화, 양아치, 이병찬, 김세진, 문경원, 로랑 페르노 Laurent Pernot(프랑스), 해미 클레멘세비츠 Rémi Klemensiewicz(프랑스), 히로노리 무라이 Hironori Murai(일본)+김승영, 크리스토프 브뤼노 Christophe Bruno(프랑스)
 - 공연 : 김병오, 김혜경, 코끼리들이 웃는다, 가다 프로젝트, 나나다시, 보라운 Bora Yoon(미국), 원 스텝 One Step at a Time Like This(호주), 팀 스푼너 Tim Spooner(영국), 가브리엘 프로코피에프 Gabriel Prokofiev(영국), 툴라신 Thylacine/Les Gordon(프랑스), 마리사 실바트리즈 폰스 Marisa Silbatriz Pons(스페인)
 - 영화 : 추천인 - 오를랑ORLAN(예술가), 조민기(영화배우), 심영섭(영화평론가), 문경원(예술가), 한지승(영화감독), 차진엽(안무가), 계한희(패션 디자이너), 하지현(정신과 전문의)
상영영화 - 님아, 그 강은 건너지 마오 등 38편 *세부일정표 첨부
 - 워크숍 : 문경원, 원 스텝One Step at a Time Like This(영국), 재미웍스(오종철, 김남기)
가브리엘 프로코피에프 Gabriel Prokofiev(영국), 코끼리들이 웃는다, 김준,
마리사 실바트리즈 폰스 Marisa Silbatriz Pons(스페인)
 - 토크쇼 : 팀 스푼너(Tim Spooner), 김병오, 보라운(Bora Yoon)

□ 전 시

구분	No.	작가명	작품명	작품이미지
1 감각의 정원에서	1	국형걸	Compact City 2016, Installation, dimensions variable	
	2	이희원	INFINITY II 2011-2012, Video installation, 4min 58sec	
	3	릴릴	Dream Time II 2016, 3-Channel drawing moving image, full HD, b&w, stereo sound, play loop, 7 wooden pannel objects, golden fabric sitting cushions, dimensions variable	
	4	김준	제의적 소리 2014-2016, Sound installation, 60 x 200 x 43 cm	
	5	해미 클레멘세비츠	성음송 2016, Sound installation, 250 x 250 x 50 cm	
	6	로랑 페르노	Particles 2004, Video installation, 8min	
2 네모난 무지개를 따라	7	신성환	명명 2011, Interactive installation, dimensions variable	
	8	김명범	Untitled 2009, Installation, dimensions variable	

			Untitled 2016, Performance video, 5min	
	9	문경원	Promise Park (Workshop) 2016	
3 욕망의 땅 깊숙이	10	양아치	성진은 복숭아꽃 한 가지를 꺾어 팔 선녀에게 던지는데 2016, Installation, dimensions variable	
	11	이병찬	URBAN CREATURE - FAKE PLASTIC TREE 2016, Installation, dimensions variable	
	12	김원화	Kodesh 2015, Kinetic sculpture, 50.6 x 50.6 x 137 cm	
			Catedral MAX model 2015, Installation, 89.5 x 45.3 x 150 cm	
			Invisible Hand 2015, Video projection mapping, loop	
			Catedral MAX VR 2015, 360 VR video, 4096 x 2048 pixel, 30sec	
4 꽃을 피우다	13	히로노리 무라이 + 김승영	수평선과 만남 2016, Installation, dimensions variable	
	14	김세진	일시적 방문자 2015, 2-Channel HD video, 11min 03sec	
	15	크리스토프 브뤼노	WiFi-SM 2003-2006, Interactive installation, dimensions variable	

□ 공연

	단 체	국적	제 목	장 르	일 시	회	장소
1	팀 스푼너 Tim Spooner	영국	동물들의 집회 The Assembly of Animals	인형극 설치미술	4.29(금) 19:30, 21:00	2	3등 대합실
2	원스텝 One step at a Time Like This	호주	업사이드다운 인사이드아웃 upsidedowninsideout	장소특정형 관객참여	4.30~6.26 기간 내 목.금.토.일 10:00~19:00	350	전관
3	틸라신 Thylacine/ Les Gordon	프랑스	유배 Exil	음악	5.4(수) 20:00	1	3등 대합실
4	가브리엘 프로코피에프 Gabriel Prokofiev	영국	넌클래식 나잇 NonClassical Night	클래식 현대음악	5.13(금) 20:00	1	3등 대합실
5	가다 프로젝트	한국	환상의 차질	현대무용	5.20(금) 20:00	1	3등 대합실
6	마리사 실바트리즈 폰스 Marisa Silbatriz Pons	스페인	에피소드 08 Episode 08 and Activity Whistling	퍼포먼스 설치미술	5.27(금) 20:00	1	3등 대합실
7	김혜경	한국	토끼다다	현대무용	6.1(수) 20:00	1	3등 대합실
8	김병오	한국	토크 Talk	클래식	6.3(금) 20:00	1	3등 대합실
9	코끼리들이 웃는다	한국	몸의 윤리	장소특정형 관객참여형	6.8~6.10 수.목.금 19:00, 21:00	6	RTO
10	보라운 Bora Yoon	미국	발성 Phonation	현대음악	6.17(금) 20:00	1	3등 대합실
11	나나다시	한국	허풍선이 남작의 연회장	연극	6.24(금)20:00 6.25~6.26(토.일)16:0 0	3	3등 대합실

□ 영 화

▶ 장소 : 문화역서울 284 1층 3등 대합실 / 상영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추천인	상영기간	추천인 메시지 / 추천사유	영화 타이틀	감독	장르
계한희 (패션 디자이너)	5월1주 5.1(일) 5.3(화) 5.6(금)	현실의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이상을 찾아가는 예술가들의 희망의 메시지	디올 앤 아이(2014)	프레데릭 청	다큐멘터리
			셉템버 이슈(2009)	RJ 커틀러	다큐멘터리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2013)	짐자무쉬	드라마/로맨스
			프란시스 하(2012)	노암 바움백	드라마
조민기 (영화배우)	5월2주 5.8(일) 5.10(화) 5.14(토)	시·공을 초월한 세계에서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는 시간	베를린 천사의 시(1987)	빔 벤더스	판타지/드라마
			중앙역(1998)	윌터 살레스	드라마
			파리 텍사스(1984)	빔 벤더스	드라마
심영섭 (영화평론 가)	5월3주 5.15(일) 5.17(화) 5.18(수) 5.19(목)	사랑, 가족, 자연 등 이상적 공간, 관계, 휴머니즘에 대한 영화 보고서	파송송 계란탁(2005)	오상훈	드라마
			인턴(2015)	낸시 마이어스	코미디
			남야, 그 강을 건너지 마오(2014)	진모영	다큐멘터리
			마션(2015)	리들리 스콧	드라마/SF
			위대한 개츠비(2013)	바즈 루어만	드라마/로맨스
			노트북(2004)	닉 카사베츠	드라마/로맨스
			아바타(2009)	제임스 카메론	SF/액션
문경원 (미디어 아티스트)	5월4주 5.22(일) 5.24(화) 5.25(수) 5.26(목)	이상적인 삶과 현실 사이의 고뇌와 이상 세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	잃어버린 지평선(1937)	프랭크카프라	드라마/판타지
			뷰티풀 그린(1996)	콜린세로	코미디
			문라이즈킹덤(2012)	웨스앤더슨	드라마/코미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1984)	미야자키하야오	애니메이션/SF
			어느 예술가의 마지막 일주일(2011)	마르얀 사트라피, 빈센트 파로노드	드라마
한지승 (영화감독)	6월1주 5.29(일) 5.31(화) 6.2(목)	삶과 죽음, 현실과 이상, 과거와 미래, 그 사이에서 이상향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여정	시네마천국(1988)	주세페 토르나토레	드라마
			지중해(1991)	가브리엘 살바토레	드라마
			아비정전(1990)	왕가위	드라마/범죄
			그랑블루(1988)	뤽 베송	드라마/로맨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1968)	스탠리큐브릭	SF/드라마
차진엽 (무용가)	6월2주 6.5(일) 6.7(화) 6.8(수) 6.9(목) 6.10(금)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회색 빛이라면 현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진정 바라는 유토피아에 대한 단상	메트로폴리스(1927)	프리츠 랑	SF
			플레이타임(1967)	자크타티	코미디
			솔라리스(1972)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SF
			방파제(1962)	크리스마커	드라마
			바이센테니얼 맨(1999)	크리스 콜럼버스	SF/드라마
			더 기버: 기억전달자(2014)	필립 노이스	SF/드라마
하지현 (정신과 전문의)	6월3주 6.12(일) 6.14(화) 6.15(수)	인생의 의미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 그 해답을 찾아가는 소통의 과정	트루먼쇼(1998)	피터 위워	SF/드라마
			어바웃 타임(2013)	리처드 커티스	로맨스 드라마
			그래비티(2013)	알폰소 쿠아론	SF 드라마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2013)	고레에다히로카즈	가족 드라마
			아무르(2012)	미케엘하네케	로맨스 드라마
오를랑 ORLAN (아티스트)	6월4주 6.19(일) 6.21(화) 6.22(수)	20세기 시사 풍자 코미디 영화를 통해 보는 현대 사회에 대한 고민과 통찰	이디오크러시(2006)	마이크 저지	코미디/판타지
			플레이타임(1967)	자크타티	코미디
			모던타임즈(1936)	찰리채플린	코미디

□ 워크숍

참여작가	일 정	장 소	내 용
원스텝 One step at a Time Like This	5.5(목) 14:00	3등대합실	배우 없는 공연 만들기 문화역서울 284의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배우가 등장하지 않는 공연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장소와 관객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작업 방식을 소개한다.
재미웍스 (오종철, 김남기)	5.7(토) 14:00	3등대합실	테니스공 세미나: "내 안의 질문을 깨워라!" 가족, 친구, 연인 등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과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낯선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일상을 변화시키는 관계의 힘을 일깨운다.
가브리엘 프로코피에프 Gabriel Prokofiev	5.14(토) 14:00	3등대합실	클래식, 현대적으로 즐기기 구 소련을 대표하는 작곡가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의 손자인 가브리엘이 클래식을 전자음악 디제잉으로 재해석하는 작업 방식과 의미에 대해 이야기 한다.
김준	5.21(토) 16:00	3등대합실	비디오 아트와 쇼스타코비치의 만남 영상: 김준, 피아노: 최원선, 첼로: 나인국
문경원	5.27(금) 14:00	RTO	프래미스 파크, 미래 공원의 제안 이상적인 형태의 공원에 대한 질문을 통해 장소가 지니는 공공적 가치와 자연의 의미,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고민해 본다.
마리사 실바트리즈 폰스 Marisa Silbatriz Pons	5.28(토) 14:00	3등대합실	휘파람, 신이 내린 인간의 소리 휘파람 소리만으로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상상하게 하는 마술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휘파람의 예술적 가능성을 펼쳐 보인다.
코끼리들이 웃는다	6.11(토) 14:00	3등대합실	관객과의 '밀당' 체험 공연이 시작되기 전까지 작가들은 무슨 고민을 하는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와 함께 관객들이 직접 제작 과정을 체험하도록 유도한다.

□ 토크쇼

이 름	일 정	장 소	내 용
팀 스푼너 Tim Spooner	4.30(토) 14:00	3등대합실	어른들을 위한 인형극, <동물들의 집회> 2015년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크게 주목받은 신작 인형극의 제작 과정을 설명하면서 상상 속의 동물을 인형으로 만드는 장면을 현장 시연한다.
김병오	6.4(토) 14:00	3등대합실	살며, 사랑하며, 노래하며 목수 출신의 세계적인 테너 김병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주제로 토크를 진행하며 성악 공연을 펼친다.
보라운 Bora Yoon	6.18(토) 14:00	3등대합실	일상에서 예술로, 보라운의 작품세계 TED 강연자 보라운이 일상의 소리를 수집하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사운드 아트 공연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첨부2. 공연소개 : 원스텝 <upside-down-inside-out>

원스텝 One Step at a Time Like This
업사이드다운인사이드아웃
upside-down-inside-out

호주 출신의 극단 **원스텝(One Step at a Time Like This)**은 이번 문화역서울 284의 기획프로그램 <복숭아 꽃이 피었습니다>에 맞춰 “업사이드다운인사이드아웃”이라는 장소 특정한 관객 참여형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수도 서울을 관통하는 교통의 요지로 60년 이상을 기능해온 구 서울역사, 그 곳에 새롭게 들어선 복합 문화공간 문화역서울 284만의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업사이드다운인사이드아웃”은 아이가 포함된 가족 단위의 관객을 매 공연의 주인공으로 초대합니다. 이들은 원스텝의 스토리 북을 따라 마치 보물찾기 하듯 공간을 탐방하며 상상 속에서 마주할 법한 방들을 통과합니다. 책과 영상, 연극 등 곳곳에 다양하게 배치된 원스텝만의 흥미로운 장치들을 통해 문화역서울 284를 돌아다니다보면 금세 90분의 시간이 흐르며 빨간 풍선을 하늘로 날려 보냄과 동시에 ‘우리’만의 공연은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문화역서울 284이라는 역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upside-down-inside-out**”은 관객이 직접 공연의 주체가 되어 각자만의 소중한 기억이 담긴 한 편의 공연을 완성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며 함께 참여한 가족 또한 끈끈한 유대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서서 한 번 시계를 봐봐.

여기는 원래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를 만나는 곳이었어.

이 건물이 지금처럼 그림과 춤과 노래를 위한 곳이 되기 아주 오래 전에,

이 곳은 원래 기차역이었어. 아주 다양한 곳에서 온 기차와 사람들이

여기로 모였지. 시계 밑, 바로 여기에 말이야. 그보다도 더 옛날, 여기는

태고의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는 곳이자 잡초가 가득한 냇가였어.

지금은 사람들이 전시와 예술을 보기 위해 오는 곳이지만.

하지만 나는 너를 여기와는 다른 어딘가로 데리고 가고 싶어!

시계를 마주본 채로, 쌍둥이처럼 서로 가까이 마주 붙어있는 돌기둥을

찾아 봐.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갈 수 있겠어?

한번 가서 해 봐!

- 공연 스토리 북 中 -

프로젝트284: 복숭아 꽃이 피었습니다

project284: Peach Blossom, Hopeful Flower of Utopia

신 수 진

문화역서울 284 예술감독

봄날의 빛은 매력적이지만 차가운 바람을 숨기고 있다. 별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서 바람을 피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살랑거리며 흔들리는 연초록 이파리들을 바라볼 때, 봄별은 가장 이상적이다. 내가 좋아하는 장면이긴 하지만 적고 보니 참 까다롭기도 하다. 계절에 날씨에 시간대에 장소까지, 이 모든 조건을 갖추어 즐거움을 찾기란 얼마나 힘이든가 말이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장면을 위해선 많은 조건이 필요하다. 이 조건들은 그간의 경험이나 기억, 학습이나 문화적 배경에 의해 차곡차곡 쌓인 개인의 취향이다.

제한된 조건 안에서만 충족되는 취향의 기준들은 나를 만족시키기보다 부족함을 찾아내는 일에 더 잘 쓰인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봄은 너무 짧고, 투명한 햇빛은 금새 구름에 가려지고, 바람엔 먼지가 실려 오고, 꽃잎은 한나절 봄비에다 허무하게 져버린다. 취향이 분명할수록, 나를 기쁘게 하는 조건들은 충족되기 어렵다. 무엇 덕분에 기쁘고 만족스럽기보단 무엇 탓에 아쉽거나 성가신 일이 어느새 훨씬 많아진다. 행복을 위해 갖추어져야 하는 조건들이 까다로워질수록 행복은 쉽게 방해받는다.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충분히 즐겨왔고, 내게 익숙해진 모든 것을 벗어나 아름다움을 찾을 수만 있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살만한 곳이 될 것이다. 나를 뛰어넘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거다.

2016년 프로젝트284는 몇 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순간순간 희열을 느끼고, 차분히 삶을 성찰하며, 만족스런 시간을 이어가면서 미래를 낙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시대의 예술은 이런 평범하지만 쉽게 답을 할 수 없는 질문들을 상기시키고 공감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제공하는 **몰입과 상상, 놀이와 공감**을 통해서 문화역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을 이어가고자 한다. 살아가는 일이 비록 힘겹다 해도, 더 나은 삶을 위한 질문을 멈추지 않을 수만 있다면, 지금 바로 여기가 복숭아 꽃 가득 피어난 낙원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감각의 정원에서 다섯 가지 감각은 인간의 정서와 사고를 열어주는 첫 번째 관문이다. 희노애락의 감정은 물론이고 논리적인 생각들도 감각으로부터 시작된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피부로 접하는 감각에의 몰입만으로도 순수한 기쁨을 느낄 수 있을 때 감각의 위대함은 빛을 발한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미 알고 있는 사건만 일어나는 세상이라면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 이제 **네모난 무지개를 따라** 새로운 세상을 찾아 떠나고 싶다. 삶이 여전히 흥미로운 것은 아직 한순간도 살아보지 못한 내일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불안해하기도 하지만 상상할 수 있는 내일이 있어 가슴이 설렌다. **욕망의 땅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는 황폐해진 땅에서 태어난 이상한 생명체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조화롭다고 하기엔 너무나 부조리하고 아름답다고 하기엔 너무나 거칠다. 하지만 삶이 아름다운 것은 기쁨과 슬픔이 함께 하기 때문이고, 새싹이 아름다운 이유는 차가운 땅을 뚫고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꿈을 꾸다. 하나의 목소리가 울림을 얻고 마주잡은 손으로 타인의 고통을 내 것처럼 받아들이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을 때 이 땅에는 어느새 열매를 약속하는 **꽃이 피어난다.**

《프로젝트 284: 복숭아 꽃이 피었습니다》는 낙원과도 같은 거대한 놀이터를 꿈꾸었다.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무릉도원武陵桃源처럼 깊은 숲 속에 숨겨진 낙원을 문화역에 만들고 싶었다. 그 별천지의 입구는 달콤한 복숭아 향이 가득하고 꽃잎이 하늘에서 눈처럼 날려서 그 꽃에 마음을 빼앗겨 걷다보면 우연히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무릉도원은 현실이기도 이상이기도 하다. 현실의 끝자락과 맞닿아 있으면서 동시에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이상적이다. 빈부나 귀천을 구분하지 않고 평화롭게 같이하는 삶 속에서 시간은 꿈을 꾸듯 흘러간다.

문화역 전체의 공간을 방마다 거닐며 만나는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감상보다는 체험을 요구한다. 아무리 낙원이 지척이라 한들 내 발로 걸어 들어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 흰 벽 앞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감상하는 미술관 투어는 잊어주길 바란다. 이러 저리 탐색하고, 두드리고, 귀 기울이고, 만져보고, 큰소리로 말하고, 맛보면서 온종일 머물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예술의 힘을 문화역의 모든 방마다 가득 채우고 싶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함께 낙원의 문에 한 발 더 가까이 가고 싶다.

이번 행사를 가능하게 해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감사드리고, 신의를 바탕으로 기꺼이 작품을 만들어 주신 작가 여러분들에게 존경을 전한다. 그리고, 예술의 영역을 확장시켜서 문화 놀이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284의 용감한 시도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싶다.